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포스트 차이나의 선두주자,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자!

목 차

■ 포스트 차이나의 선두주자,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베트남 경제 동향	2
1) 경제/산업 동향	2
2) 성장 잠재력	6
3) 한-베트남 경제 교류	9
3. 시사점	12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백 흥 기 이 사 대 우 (02-2072-6228, hkback@hri.co.kr)

□ 신성장연구실 : 안 중 기 선 임 연 구 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

Executive Summary

<요 약>

■ 개 요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이러한 결과, 최근에는 중국의 뒤를 잇는 대표적인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며,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포스트 차이나로 언급되는 국가들 중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신흥시장이다.

■ 베트남 경제 동향

(경제산업 동향) 고성장, 저물가, 저실업 등 거시경제 환경이 양호하다. 2012년 5.2%까지 하락했던 경제성장률도 6%대로 회복했으며, 실업률도 2%대에서 안정적이다. 한때 고물가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으나,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지금은 많은 낮아진 상황이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대외경제 여건도 괜찮은 편이다. 제조업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다만 자국기업보다는 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전체 수출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성장 잠재력) 생산, 소비, 투자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베트남 인구는 곧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임금수준은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반면 노동력의 질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최적의 조건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은 중산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산층 인구는 2009년 1,680만 명에서 2020년 5,580만 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화가 진전되고, 양질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대규모 SOC 투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아직 30%대에 머물고 있다. 도시화율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한-베트남 경제 교류)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 베트남과 경제 교류가 가장 활발하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수출국, 8대 수입국, 5대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4대 수출국, 2대 수입국, 최대 투자국이다. 또한 한국이 제공하는 대외원조 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공여국에 해당한다.

■ 시사점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첫째**,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한류를 발판으로 중산층 소비시장을 공략하고, 인프라 건설과 대외원조를 연계해 투자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최근 체결한 한-베트남 FTA도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둘째**, 주변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해야 한다. 베트남은 그 자체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아세안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에도 적합하다. 한국과 교류가 많은 베트남을 거점으로 주변 아세안 신흥국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경제 교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하려는 노력과 병행해 베트남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1. 개요

○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

- ASEAN(10개국) 회원국인 베트남이 주요 신흥시장으로 부상

- 공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하며 중국, 라오스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1986년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채택한 이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왔고, 최근에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 부상

-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미국·중국 등과 실리외교를 추진

- 베트남 유일의 합법정당인 공산당이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일당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미약하여 정치적 안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경제발전 과정에서 계층간 빈부격차, 지역간 불균형 성장 확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과는 국경 분쟁으로 정치적 긴장 관계에 있으나 경제 교류는 점차 확대 중이고, 한때 전쟁 당사국이었던 미국과도 관계 개선에 노력

- 1992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 한-베트남 FTA가 2015년 체결되어 발효

-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우호관계를 확대해왔으며, 정치·외교·과학·문화 등 많은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
-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베트남 포함, 2007년 발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양국간의 경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고, 2015년 12월부터 발효

< 베트남 위치 >



< 국가 개요 >

면적	331,000 km ² (한반도의 1.5배)
수도	하노이 (720만 명)
인구	9,360만 명 (세계 14위)
민족	비엣족(86%), 기타 소수민족
종교	불교(44%), 가톨릭(37%)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언어	베트남어(공용어)
통화단위	베트남동 (VND로 표기)
GDP	2,013억 달러 (한국의 14%)
1인당 GDP	2,173달러 (한국의 8%)
경제성장률	실질 GDP성장률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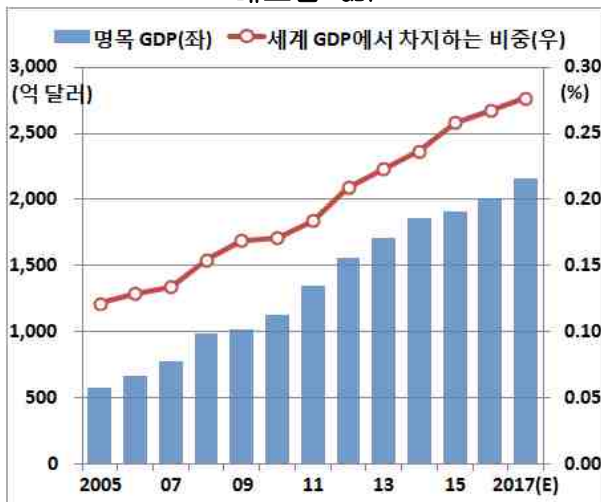
자료 : 수출입은행, IMF, KOTRA (2016년 기준).

2. 베트남 경제 동향

1) 경제/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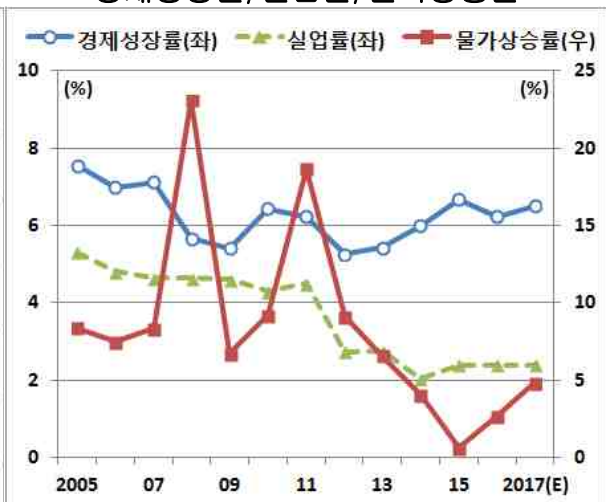
- (대내 경제) 베트남은 고성장, 저물가, 저실업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 베트남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GDP 기준)을 점차 강화
 - 베트남의 GDP(명목)는 2016년 기준 2,013억 달러(세계 48위)이며, 한국 GDP의 14.3% 수준
 - 세계 GDP에서 베트남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12%에서 2016년 0.27%로 지속적으로 증가
 - 고성장 지속, 낮은 실업률, 물가 안정 등 거시경제 환경은 양호
 -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2012년 5.2%까지 하락했으나, 2016년 6.2%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6.5%로 예상
 - 실업률도 2005년 5.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15년 이후에는 2.4%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은 2012~2014년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크게 하락했고, 2015년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의 시행으로 소폭 상승
 - 한편 베트남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2016년 기준 GDP 대비 6.6% 비중)¹⁾

< 베트남 GDP >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7.04).

< 경제성장률/실업률/물가상승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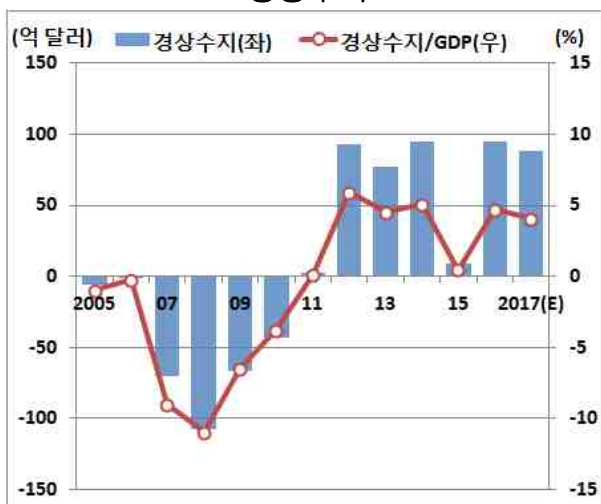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7.04).

1)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7.04) 통계 기준.

- (대외 경제) 베트남은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지속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양호함
 - 전자·섬유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
 - 경상수지는 2011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2016년 기준 약 94억 달러)
 - 섬유·의류 산업이 수출을 주도해왔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 제품이 섬유·의류 제품을 제치고 최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
 -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베트남의 4대 수출 국가이며, 중국에 이어 2대 수입 국가에 해당함(2016년 기준)²⁾
 -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 추세이며, 투자의 대부분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및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
 -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017년 상반기 192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도 전체 투자액의 약 80%에 해당함)
 - 누계 기준(1988년~2017년 6월, 3,063억 달러)으로 한국(545억 달러)이 최대 투자국이며 일본(461억 달러), 싱가포르(412억 달러), 대만(305억 달러)이 뒤따르고 있음³⁾
 -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크지만, 최근에는 제조업 투자 비중이 줄고 서비스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경상수지 >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7.04).

< 외국인직접투자(FD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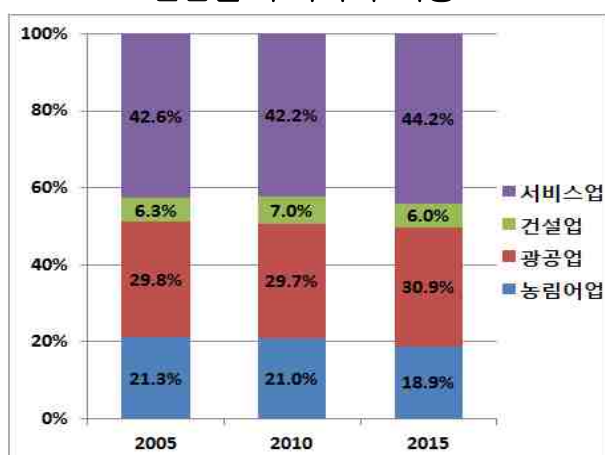
자료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승인액 기준).

2) 베트남 통계청 수출입 통계 기준.

3)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통계 기준.

- (산업 구조) 산업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산업 생산 및 수출에서 외투기업과 국영기업의 영향력이 큼
 -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농림어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최근 부품소재 산업, 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모색 중
 - 2005년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광공업 비중은 소폭 증가(29.8%→30.9%)했고, 농림어업 비중은 감소(21.3%→18.9%)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함
 - 인구의 약 70%가 농촌 등 非도시에 거주하며, 그중의 절반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세계적으로 쌀 수출 1위, 커피 수출 2위, 고무 수출 3위에 해당)⁴⁾
 - 수입 원자재와 자본재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부품소재 산업, 서비스업의 육성을 지속 추진
 - 사회주의 전통이 남아있어 산업 전반에서 국유기업의 영향력이 크며, 외투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국유기업의 방만 경영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2017년 1~5월 15개 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짐. 2020년까지 총 137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⁵⁾
 - 베트남의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6년 기준 각각 71.6%, 59.0%에 이르고 있음
 -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기전자 제품 등 주요 수출품의 대부분은 자국기업이 아닌 외투기업에서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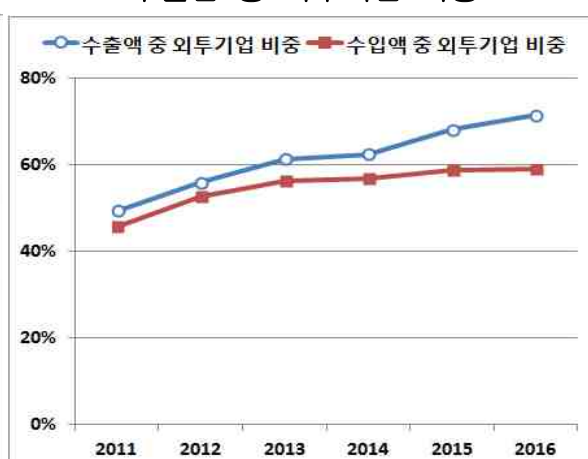
<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



자료 : United Nations.

주 : 광공업은 광업·제조업·유틸리티산업을 포함.

< 수출입 중 외투기업 비중 >



자료 : 베트남 통계청(KOTRA에서 재인용).

주 : 전체 수출입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4) KORTA 베트남 국가정보(주요 산업 동향) 참조.

5) KOTRA 베트남 국가정보(경제동향 및 전망) 참조.

- (경영 활동) 베트남의 경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향후 경영 계획도 긍정적임
 -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베트남의 전반적인 경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베트남의 전반적인 기업경영 여건은 2011년 세계 98위에 머물렀으나, 2017년 68위로 크게 상승
 - 건축 인허가, 전력확보, 소액투자자보호, 조세납부와 관련된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
 - 그러나 창업, 지급불능해결, 대외무역 등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문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외투기업들의 향후 경영 계획은 긍정적임
 - JETRO에서 베트남 현지의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에 투자 확대 등 확장 전략을 펼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66.6%에 이르고 있음
 - 베트남에서 경영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 비중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주요 신흥국들보다 높음
 - 반면 현행 유지라는 응답 비중은 32.1%이고, 기업 활동을 축소 혹은 철수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0.6%에 머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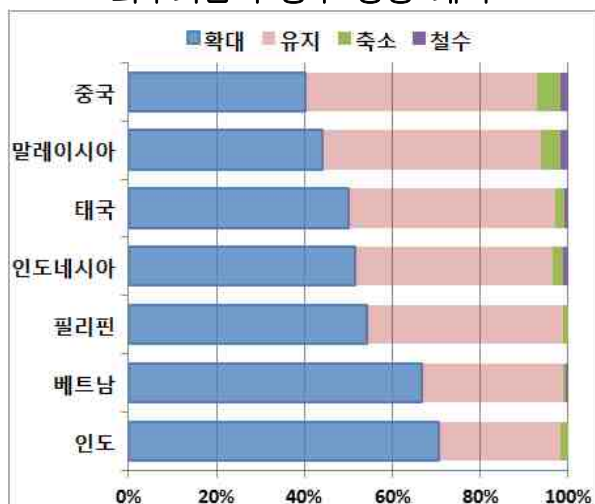
< 기업경영 여건 >

	2011	2017
창업	103	123
건축인허가	67	20
전력확보	135	64
재산등록	47	63
신용획득	24	29
소액투자자보호	166	81
조세납부	151	86
대외무역	68	94
계약실행	30	66
지급불능해결	142	129
종합	98	68

자료 : World Bank(Doing Business).

주 : 2011년은 183개국, 2017년은 190개국 중 순위.

< 외투기업의 향후 경영 계획 >



자료 : J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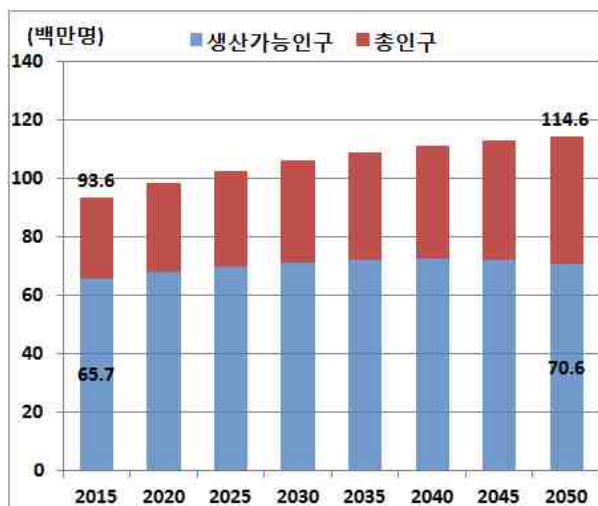
주1) 2016년 기준 향후 1~2년간 경영활동 계획
 주2) 철수는 제3국으로의 이전을 포함.

2) 성장 잠재력⁶⁾

○ (생산)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수준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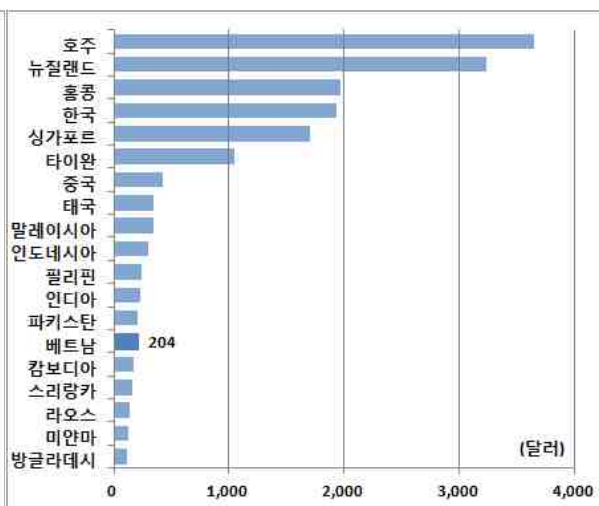
- 대규모 인구에 기반한 풍부한 노동력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쟁력에 해당
 - 베트남은 세계 14위의 인구 대국(2015년 9,360만 명)으로 2020~2025년에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5년 기준 6,570만 명으로 총인구의 70.1%를 차지
 - 베트남 근로자는 근면성실하고 노동력의 질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들에 비해 낮음
 - 베트남 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4 달러로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의 근로자 임금 수준보다 낮음
 - 그러나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제조업 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
 - 베트남 비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43 달러로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보다 약 2배 높음. 주요국 비제조업 근로자의 임금과 비교하면 베트남의 순위는 제조업과 유사함⁷⁾

<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



자료 : UN(World Population Prospect 2017).
주 :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를 의미.

< 아시아 주요국의 근로자 임금수준 >



자료 : JETRO(2016년 기준).
주 : 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6) 현대경제연구원, “아세안 주요 4개국의 성장 잠재력 및 시사점”, 2015.04.20 참조.

7) JETRO 설문조사 자료 참조.

○ (소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이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산층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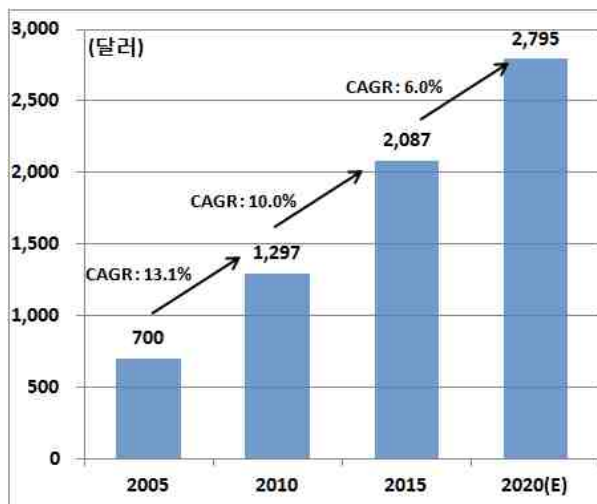
- 베트남 경제가 지속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수준(1인당 GDP)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10년 약 1,300달러에서 2015년 약 2,100달러(세계 139위)로 연평균 10.0%씩 빠르게 증가
- 1인당 GDP 증가율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2020년 약 2,800달러에 이를 전망
- 주변 신흥국인 중국(8,200달러), 태국(5,800달러), 인도네시아(3,400달러), 필리핀(2,900달러)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2015년 기준)

- 소득 향상은 저소득층 감소와 중산층 및 고소득층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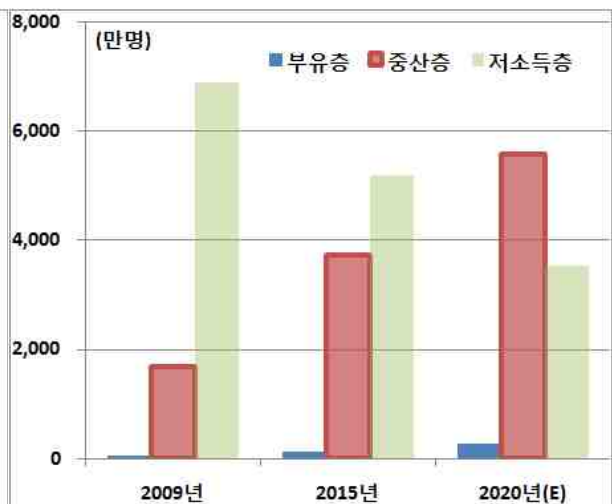
-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2009년 6,890만 명에서 2020년 3,54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
-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35,000달러의 중산층 규모는 2009년 1,680만 명에서 2020년 5,580만 명으로 3.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가처분소득 35,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규모는 동일 기간 60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인당 GDP >



자료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17.04).

< 소득 계층별 인구 >



자료 : JETRO(무역협회에서 재인용).

주 : 중산층은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35,000달러.

○ (투자) 향후 도시화가 진전되고, 양질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대규모 SOC 투자가 발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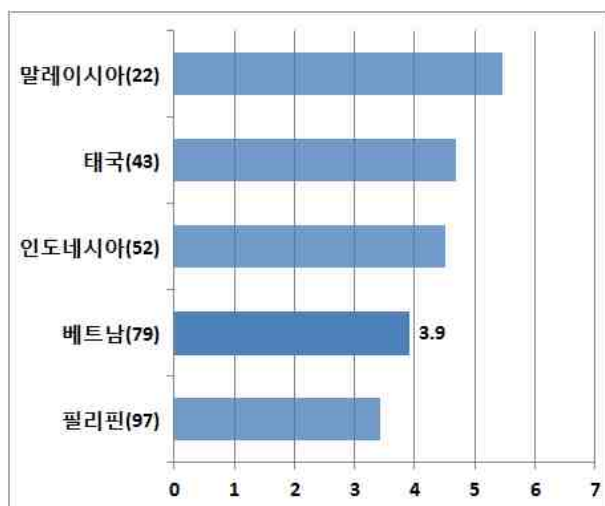
- 전기·도로·항만 등 베트남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열악하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향후 국민들의 양질의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베트남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3.9)은 말레이시아(5.5), 태국(4.7), 인도네시아(4.5) 등 주변국보다 열악한 상황
- 인프라의 낙후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전반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베트남 국민들의 양질의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 정부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속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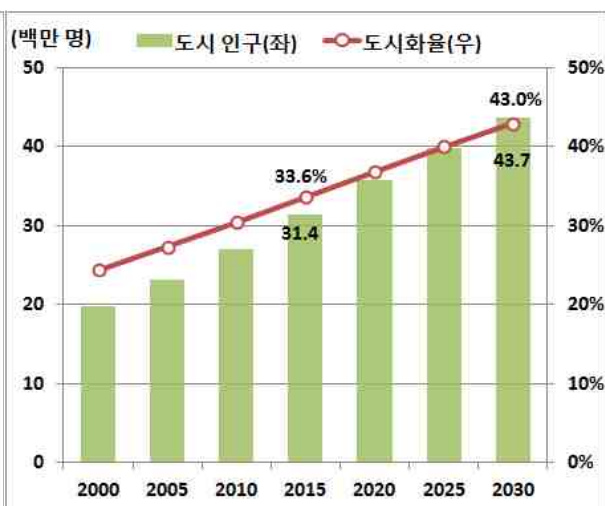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택 및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창출될 전망

- 베트남의 도시인구는 2015년 기준 3,140만 명으로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은 33.6%에 머물고 있음
- 농촌 등 非도시 거주 인구가 6,200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투자 수요가 창출될 전망
- 2030년 도시인구는 4,370만 명, 도시화율은 43.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동남아 주요국의 인프라 수준 >



< 도시인구 및 도시화율 >



자료 : WEF(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자료 : United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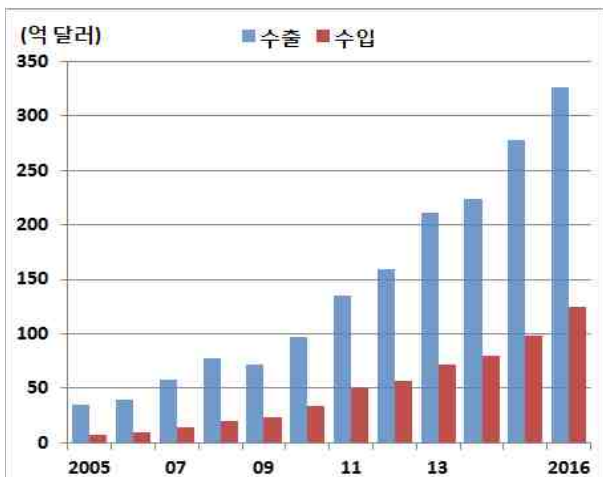
주 : 7점 만점 기준. 괄호안은 137개국 중 순위.

주 :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

3) 한-베트남 경제 교류

- (무역)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 대상국이며, 對 베트남 수출입 중 상당 부분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로부터 발생하고 있음
- 베트남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4대 교역(수출+수입) 대상국이며, 한국은 베트남과의 무역을 통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중국, 미국, 홍콩에 이어서 한국의 4대 수출국에 해당함(2016년 기준)
 - 對 베트남 수출액은 2005년 34억 달러에서 2016년 326억 달러로 연평균 22.7%씩 지속 증가
 - 베트남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에 이어서 한국의 8대 수입국(2016년 기준)
 - 對 베트남 수입액은 수출액을 크게 하회하고 있지만, 2005년 7억 달러에서 2016년 125억 달러로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연평균 30.0%씩 빠르게 증가
- 對 베트남 수출의 상당 부분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와 자본재 수요에서 발생하며, 수입품 중에는 현지 한국기업으로부터의 역수입이 다수 포함
 - 한국은 베트남에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 베트남으로부터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 현지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부품 수출, 현지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의 역수입 등 베트남 진출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출입이 상당함

< 한국의 對 베트남 수출입 >



자료 : 무역협회.

< 對 베트남 주요 수출입 품목 >

순위	수출(백만 달러)		수입(백만 달러)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전자부품	9,255	산업용 전자제품	3,980
2	산업용 전자제품	6,063	섬유제품	2,661
3	직물	2,085	기타 생활용품	653
4	석유화학 제품	1,491	수산물	621
5	수송기계	1,442	가정용 전자제품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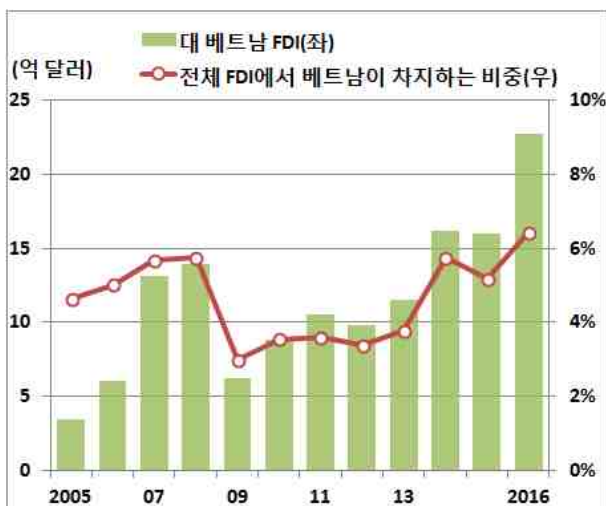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2016년, MTI 2단위 기준).

○ (투자)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양상도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FDI는 점차 증가하여 2016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베트남은 미국, 중국, 홍콩, 케이만군도에 이어서 한국의 5대 투자 대상국가에 해당함(2017년 6월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 한국의 對 베트남 FDI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급감하였다가 점차 회복하여 2016년에는 사상 최고치(22.7억 달러)를 기록
 - 한국의 전체 FDI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0%를 기록한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6년 기준 6.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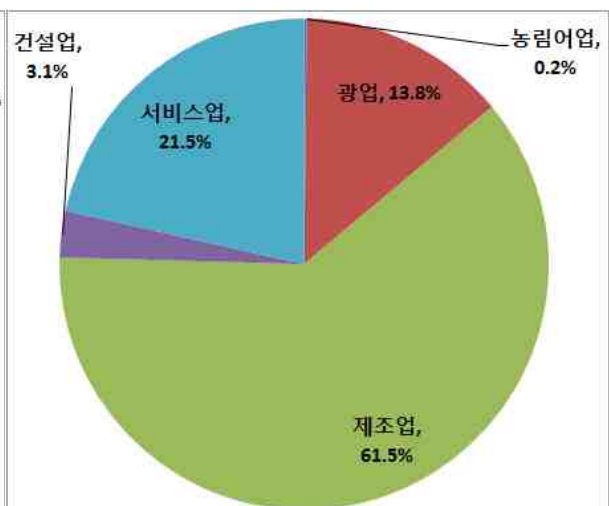
-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투자 다변화가 진행 중
 -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6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21.5%, 광업 13.8%, 건설업 3.1%임
 -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현지투자를 확대하면서, 단순 섬유 가공 위주의 제조업 투자에서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투자 분야가 다변화
 - 베트남 정부는 자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입대체를 위해 부품소재 산업 분야 등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한국의 對 베트남 FDI >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투자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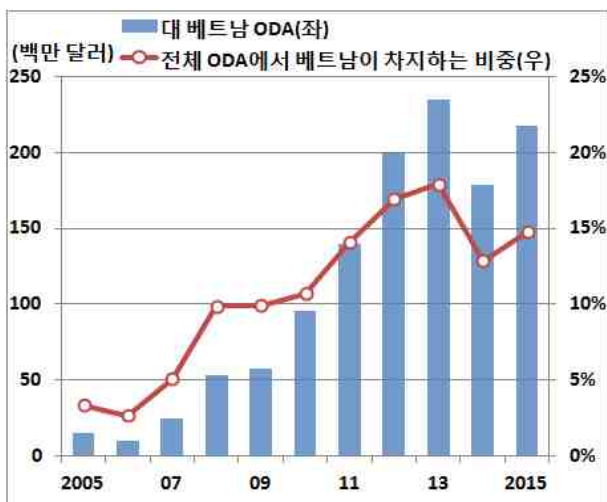
< 한국의 對 베트남 산업별 FDI 비중 >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투자액 기준).
주 : 2017년 6월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 (공적개발원조) 한국은 베트남에 대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인프라 등 경제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대외원조 중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공여국에 해당
 - 對 베트남 ODA는 2005년 1,500만 달러 규모에서 2013년 2억 3,500만 달러로 지속 증가. 2014년 1억 7,9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억 1,700만 달러로 회복
 -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지원대상국으로 우리가 2015년 지출한 ODA 중 14.8%가 베트남에 제공되었음
 - 두 번째 지원대상국인 라오스에 대한 원조 규모는 베트남에 대한 지원 규모의 약 40%에 불과함. 한국은 베트남에 대해 집중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베트남에 대한 최대 ODA 지원국은 일본이고, 한국은 2위에 해당함⁸⁾
 - 우리가 제공한 유무상 원조는 인프라, 공공시설 건설 등 다양한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되어, 베트남 경제기반시설 구축에 크게 기여
 - 1995년 이후 베트남에 대한 유상원조 승인액은 약 7억 1,800만 달러이며, 상수도, 고속도로, 발전설비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활용
 - 공공시설 건설(학교, 병원 등)과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 개발컨설팅(경제 타당성 조사, 마스터 플랜 수립 등) 등 무상원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한국의 對 베트남 ODA >



자료 : OECD.
주 : 순지출, 양자간 원조 기준.

< 對 베트남 세부 지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승인연도	사업명	승인액
2006	티엔탄 상수도사업(2차)	26
2007	투아티엔hue 종합병원 건립사업	31
2008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100
2009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0구간)	100
2010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 2차 사업	70
2011	베트남 다낭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10
2012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30
2013	티엔탄 상수도사업(2차)(보충)	15
2014	밤콩교량 접속도로 건설사업	31
2015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	77
2016	케넷 철도 개량사업	76

자료 : ODA Korea.
주 : 유상원조(EDCF) 기준.

8) 베트남 기획투자부(2010~2015년 ODA 기준) 자료(KOTRA에서 재인용) 참조.

3. 시사점

-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우리와 교류도 활발한 베트남을 전략적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베트남의 생산, 소비, 투자시장으로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
 -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부품소재 등 최근 베트남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진출도 검토
 - 베트남의 한류 열풍 및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 소비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
 -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다양한 인프라 건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 등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
 -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영 여건도 일부 미흡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둘째, 베트남은 국내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
 -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차세대 시장으로 베트남 등 아세안 신흥국들이 부상하고 있음
 - 베트남은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가능
 - 정부는 4대국 중심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발표
 - 특히 동남아 국가 중 한국과 경제 교류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주변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기에 적합
 - 셋째,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
 -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현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류 증대 못지않게 사회·문화 교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

- 한국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하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베트남 역사 및 문화를 이해하려는 상호 존중의 자세가 요구
-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제고하려면, 범정부차원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베트남 지역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민간부문의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 **HRI**

안중기 선임연구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